

말씀과 기도로 열매맺는삶

(2019.7.22. ~ 7.28.)

이번 주 읽을 본문	가정	삿 5 - 11	행 9 - 15
	개인	렘 18 - 24	막 4 - 10
이번 주 암송구절	바른 신학 - 전적 부패		
	<p>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p>		



마가복음 4장 / 믿음으로 들을 말씀**개요**

- 1-20 네 가지 땅 비유
- 21-34 등불, 씨, 겨자씨 비유
- 35-41 순종하는 바람과 바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십니다(1,2절). 씨를 뿌리는 자가 네 땅에 씨를 뿌리는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결실합니다(3-9절). 제자들과 사람들이 이 의미를 예수님께 여쭙습니다(10절). 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11-13절). 씨는 말씀입니다(14절). 결실을 맺는 땅은 말씀을 듣고 받은 땅 뿐입니다(14-20절). 예수님이 이어서 비유들을 말씀하십니다. 등불은 드러내기 위한 도구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도 그러합니다(21-23절). 그러나 비추인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제한적입니다(24,25절). 하나님 나라는 땅에 뿌려진 씨처럼 어느새 자라날 것입니다(26-29절). 그렇게 자라난 하나님 나라는 아주 큰 나라입니다(30-32절). 이러한 비유들은 믿음 있는 자들이 듣습니다(33,34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35-41절).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과 행위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비로소 바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혼란스럽고 두려운 말씀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사람들에게겐 평안이요 소망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기도**

하나님, 주님 나라의 평안이 오늘 나의 삶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나의 하루를 감싸주시길 바랍니다. 붙들어주시옵소서.

7월 23일(화)

삿6

행10

렘19

막5

마가복음 5장 / 참 자유, 참 치유, 참 생명

개요

1-20 거라사 귀신

21-43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앓던 여인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1,2절). 이 귀신은 무덤 사이에 살며 아무도 그를 통제할 수 없었고 자기 몸을 해하고 있었습니다(3-5절). 예수님은 귀신에게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8절). 귀신은 돼지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합니다(6-12절). 예수님이 허락하시자 귀신들은 이천 마리 되는 돼지 떼로 들어가 바다에서 몰사합니다(13절). 이 모든 일을 들은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께 떠나주시길 간구합니다(14-17절).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전파하게 됩니다(18-20절). 예수님이 바닷가에 계실 때 회당장 야이로가 딸을 구해달라고 요청합니다(21-24절).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 큰 무리가 따라가는데, 그 중 열두 해 혈루증으로 앓아 온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나음을 입습니다(24-29절). 예수님은 여자가 행한 일을 드러내시며 믿음이 그를 구원하셨다고 선언하십니다(30-34절). 그때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35절). 그러나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가서서 그의 딸을 살리십니다(36-43절).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귀신들도 두려워 떠는 분이시며, 그들의 처지를 결정할 권위를 가진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열두 해 동안 불치병으로 앓던 여인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약속하시고 내려주십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

기도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참 생명이, 참 치유가, 참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7월 24일(수)

삿7

행11

렘20

막6

마가복음 6장 / 믿음으로 받는 은혜

개요

1-13 예수님의 고향과 제자들

14-29 세례 요한의 죽음

30-44 오병이어

45-56 바다 위를 걸으시고 병자들을 고치심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십니다(1-6절).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둘씩 둘씩 보내시며 권능을 주시고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시게 하십니다(6-13절).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자 헤롯이 그 소식을 듣고 세례 요한이 되살아났다고 생각합니다(14-16절). 그러나 헤롯은 자기 불의를 덮기 위해 이미 요한을 죽인 후였었습니다(17-29절).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아온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먹이십니다(30-44절).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으시고 병자들을 고치십니다(45-56절). 예수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성함을 얻습니다(56절).

누구든지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오는 사람들은 은혜를 입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고치고 구원하실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치유와 구원을 베푸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의 시장이나 어디서든지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던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고 나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때 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주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길 바랍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

기도

하나님, 오늘도 제 인생을 주께 내어 맡깁니다. 믿음으로 나아온 모든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께 기도하오니 오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가복음 7장 / 포장한 마음, 진실한 마음**개요**

- 1-23 사람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
 24-30 수로보니게 여자의 딸을 고치심
 31-37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 중 찢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고 묻습니다(1-5절). 예수님은 그들이 사람의 전통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6-8절). 그러한 예로 하나님께 드렸다(고르반)고 하며 부모를 섬겨야 할 재물로 자기 유익을 구한 일을 말씀하십니다(9-13절). 그들이 지키던 사람의 전통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지 않았 습니다(6-8절). 그들의 전통은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을 드러낼 뿐이었 습니다(14-23절). 한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 수님께 나아가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칩니다(24-30절). 예수님은 또 다른 곳에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십니다(31-37절). 그러한 예수님의 소 식을 점점 더 널리 전파됩니다(36,37절).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말과 행동은 자기 마음을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종교행위는 자신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처럼 포장하였지만 결국 그 포장이 자신의 됴됨이를 드러냈습니다. 이방 여인은 비록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았지만 그 마음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이 잘 포장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진실한 마음으로 나야오는 모든 자들을 받아주십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기도**

그럴 듯하게 포장하는 데 힘쓰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살기에 힘쓰길 원합니다. 죄와 싸워 거룩한 마음으로 사는 인생되게 하옵소서.

7월 26일(금)

삿9

행13

렘22

막8

마가복음 8장 / 나를 따르라

개요

- 1-10 사천 명을 먹이심
- 11-26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 27-38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또 한 차례 먹을 것이 없어 기진한 큰 무리를 먹이십니다(1-10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힐난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나 예수님은 탄식하시며 그들을 외면하십니다(11-13절). 또한 예수님은 두 차례나 큰 무리를 먹이신 일을 보고 경험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경고하십니다(14-21절). 예수님은 벳새다에서 맹인 한 사람을 고치시어 모든 것을 밝히 보게 하십니다(22-26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누구라고 하는지 물으십니다(27-29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하는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가르치십니다(29-31절). 베드로는 항변하나 예수님은 그를 꾸짖으시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을 말씀하십니다(32-38절).

믿음으로 사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제자의 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은 우리 생각과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일을 따르는 삶입니다. 복음을 위해 자기의 기대와 바람도 내려놓는 삶입니다.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삶은 이러한 삶을 따르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

기도

믿음으로 사는 예수님의 제자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마가복음 9장 / 하나님 나라 질서**개요**

- 1-13 영광스러움을 드러내신 예수님
- 14-29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신 예수님
- 30-32 두 번째로 죽음을 예고하신 예수님
- 33-50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르치신 예수님

예수님은 높은 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1-8절). 이는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은 그 당시로써는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9-13절). 산에서 내려오자 귀신들린 아이를 두고 찢절 매는 제자들과 사람들이 있습니다(14-18절).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 믿음이 없다 하시며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19-23절). 믿음의 행위는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24-29절). 예수님은 두 번째로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십니다(30-32절). 그리고 하나님 나라 질서에 대해서 가르치시길, 천국은 섬기는 자가 첫째 되는 사람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함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33-3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작은 일을 행하는 사람도 같은 편이며, 그는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38-41절).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입니다(42-50절).

주님 나라에 속한 증거는 섬김으로 그리고 작은 자를 보살핌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참된 제자도는 높은 자리에 오름에 있지 않고 낮은 자리에서 섬김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그러하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음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며 그 나라의 법도를 따라 살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기도**

하나님, 우리는 주님 나라에 속한 백성입니다. 그에 걸맞은 삶을 살도록 우리 생각과 지식을 바꾸어 주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마가복음 10장 / 예수님께서로 모인 사람들**개요**

- 1-12 이혼에 대한 가르침
- 13-31 어린 아이와 재물이 많은 사람
- 32-45 섬김을 위해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
- 46-52 구원하는 믿음

바리새인들은 다루기 어려운 이혼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1,2절). 예수님은 이들에게 결혼의 신성함을 가르치시며 본래 결혼의 정신을 일깨우셨습니다(3-12절). 그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따르는 듯하나 마음으로는 그 정신을 떠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어린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허락되었습니다(13-16절). 부자 청년은 율법을 지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그는 마음에 둔 재물로 인하여 근심하며 돌아갑니다(17-22절).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23-31절). 예수님은 다시 죽음과 부활에 대해 예고하십니다(32-34절).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으나 여전히 제자들은 자리에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35-45절).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길 구하는 맹인 바디매오를 구원하십니다(46-52절).

바리새인들은 자기 지식으로 예수님에게 맞섭니다. 부자 청년은 자기 삶을 내세웁니다. 제자들은 높은 자리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맞아주시며, 불쌍히 여김을 구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인데, 그를 따르는 제자들의 목적은 사뭇 다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따라다니는 일이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섬김을 위해 오신 예수님의 발자취가 우리 삶에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기도**

섬김의 도를 따르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마음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길 원하오니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 설교 노트

본문:

날짜:

--	--

❖ 설교 노트

본문:

날짜:

--	--

1.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이름은 하나님에 의해 어떻게 바뀌나요?(2,4절)

이전에 불리던 이름	하나님이 정하신 새 이름

2.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해 가진 마음은 무엇인가요?(5절)

3.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쉬지 않으시며 그들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어떤 이들에게 이 일을 동참하게 하시나요?(6절)

4. 예수님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치실 때 무엇을 상기시키시나요?(눅 18:1,8)

5. 기도는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그 사랑의 역사에 동참자로 부름을 받은 교회로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